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일시: 2017 년 1 월 8 일 (주일) 오후 3 시

장소: Judson Memorial Church, Garden Room

모이는 곳: Garden Room,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 917-622-2471

<http://www.judson.org/TheLeastofTheseChurch>

작은자공동체 예배순서

2017년 1월 8일(주일) 오후 3시

사회: 김동균 목사

묵상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해나

"소망의 기도" (시, 박현희)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장동인

"새해의 소원" (시, 안국훈)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 김동균 목사

나눔의 이야기: 시편 1, 1-3

화두: "2017년 새해를 서로 축복하며 나는 어떤 복된 새해가 되길 바라는가?....."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김웅

"새해의 기도" (시, 홍수희)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상록수" (노래, 김민기 - 다함께)

사람 뜻 올리기(기도) ----- 다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소망의 기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니
거미줄 치듯 앞만 보고 정신 없이 달려온 삶 앞에
허무와 공허감이 밀려듭니다.

내 삶 앞에 가로놓인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에
순응하며 극복하려 노력했어도
생각대로 의지대로 잘되지 않아
더러는 상심하고 포기도 했지만
삶이 그리 호락호락한 것만이 아님을 잘 알기에
아쉬움도 후회도 없습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늘 이치에 어긋나지 않기를
나를 지배하는 모든 판단이
그릇됨 없는 현명한 판단이길 바라고
그저 큰 욕심 없이 가진 것들에 만족하고 소중히 여기며
작은 행복을 가꿀 줄 아는 소박한 삶이길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늘 지금처럼만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시, 박현희- 낭독: 해나)

한 마음 한 노래 (시)

새해의 소원

한 해가 저물고 새벽은 질주합니다

일에는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이 있고
지나간 일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마냥 망설일 수만 없어
누군가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닭이 울어 새벽이 오는 게 아니듯
달력이 바뀐다고 새해가 오는 게 아닙니다

새해는 지난 미련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잊을 건 잊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희망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새해에 뜨는 해는 당신의 큰 뜻입니다
새해에 부는 바람은 당신의 힘찬 기운이고
새해에 비는 소원은 당신의 간절한 속마음입니다

새로운 날을 맞아 뜻을 세우고 기운을 내면
가슴엔 꽃 향기 같은 온기가 흐릅니다

새해는 당신의 여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부디 꿈을 이루소서
하루가 소중한 날 되십시오

정녕

올해는 당신의 해가 되십시오

(시, 안국훈 - 낭독: 장동인)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나눔의 이야기: 시편 1, 1-3

화두: "2017 년 새해를 서로 축복하며 나는 어떤 복된 새해가 되길 바라는가?....."

일자: 2017 년 1 월 8 일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 철 따라 열매 맺으리.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or sit in the seat of mocker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he does prospers.

한 마음 한 노래 (시)

새해의 기도

후회도 많았습니다
홀로 삼킨 눈물도 많았어요
못다 이룬 아쉬움도 많았지요

무엇보다 1년 365일
그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사랑이 많이 부족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마음을 전할 수 없어
애가 타기도 했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지는 한 해를 바라보며
떠오르는 새해를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모두 축복 받은
사람들이란 것을

아직도 수많은 기회가
움트며 태어나며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실망하는 이가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르면
소리 한 번 크게 지르게 하소서!

꿈이 있다면 다시 또
힘차게 시작하게 하소서!

(시, 홍수희- 낭독: 김웅)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상록수

김민기 글, 곡

C E Am Dm G

저 들 에 푸 르 른 솔 잎 을 보 라
 서 들 고 쓰 리 던 지 나 날 들 들 도
 우 리 들 가 진 것 비 록 적 어 도

5 C E Am F D7 G

들 보 는 사 람 도 하 나 없 는 데
 다 시 는 다 람 시 는 오 나 말 라 고
 손 에 는 손 맞 잡 고 눈 지물 흘 리 니

9 C E Am Am7 F Dm7 G

비 바 람 불 고 눈 보 라 처 도
 땀 흘 리 리 리 갈 라 치 해 라 도
 우 리 나 갈 길 아 가

13 Dm A Dm Em Am Dm7 G7 C

온 누 리 끝 까 지 맘 껏 푸 — 르 라
 거 치 른 들 판 에 솔 앞 되 — 리 라
 깨 치 고 나 아 가 끝 내 이 기 리 라

17 Dm A Dm Em Am Dm7 G7 F C

깨 치 고 나 아 가 끝 내 이 기 리 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새해엔 새 마음의 눈으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새해 새 아침에
우리는 그 길을 새로이 가리라.

세상에 뜻 아닌 것이 없고,
새롭게 보면
새 소식이 아닌 게 없으리라.

세상에 새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새 눈으로 보면
낡은 것도 새 것이 되리라.

새해엔 새 눈으로
천사처럼 착하고 아름답게
새 마음의 눈으로 다시 보리라.

새 마음 새 뜻으로
너와 내가 소통하리니,
우린 서로에게 새 소식이 되리라.

새해에 새 길을 나서며
새롭고 뜻 있는 사람이 되리니,
새해에는 더욱 서로 사랑하리라.

아멘

* 오늘의 기도문은 이정우 신부의 시, "새해엔 새 마음의 눈으로" 입니다.